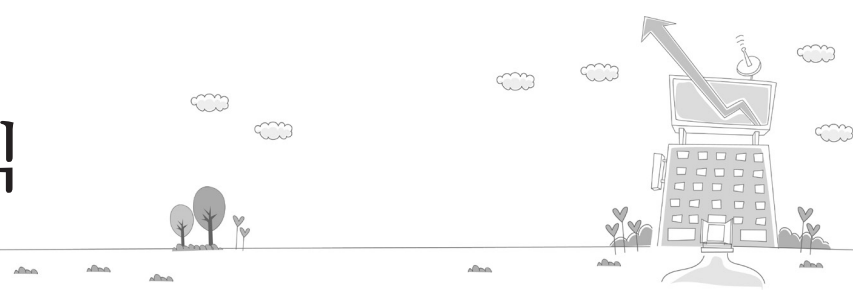


# 기관소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6차 산업화,  
이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6차산업 전문 누리집  
(www.6차산업.com)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6차산업화를 돕고, 일반 국민들의 6차산업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차산업 전문 누리집(www.6차산업.com)을 개설하여 8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6차산업 정보 제공 및 각종 정책요구(needs)를 수렴할 수 있는 전문 창구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6차산업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 및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6차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을 구축하였다.

‘배우고, 도전하고, 소통하면 성공하는 6차산업’이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6차산업 누리집은 다양한 성공 사례와 분야별로 특색 있고 상세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메뉴는 ① 6차산업 배우기 ② 6차산업 도전하기 ③ 6차산업 소통하기 ④ 성공하는 6차산

업 등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으며 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6차산업 배우기)** 6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6차산업 개념, 6차산업 뉴스로 구성

**(6차산업 도전하기)** 농업인의 6차산업 준비과정, 전문가가 6차산업 창업 성공비법을 공개하는 현장형 강의 콘텐츠 제공

\* **6차산업 도전기** :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 등 예비 6차산업인을 선정, 6차산업을 실행하기까지의 좌충우돌 미니다큐멘터리 제공

\* **6차산업 성공비법** : 전문가문단이 6차산업 현장에 방문, 상담과 함께 성공비법을 공유하는 ‘현장형 강연’ 콘텐츠 제공

**(6차산업 소통하기)** 6차산업 온라인 전문 자문단(총 13개 분야, 24인)의 칼럼과 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분야(13개)** : 창업·세무·금융·마케팅·품질위생·유통·R&D·외식·관광·전통식품·주류·가공식품·산림

**(성공하는 6차산업)** 가공·음식·유통·체험 등 6차산업 분야별 성공비결을 분석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기타)** 이밖에 6차산업 자료실, 예비인증 사업자 안내, 6차산업 정책지원사업 안내 제공

6차산업 전문 누리집은 8월 19일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농업인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지역별 6차산업화 지원센터 연계 서비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검색기능 강화 등 추가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농촌정책국장은 “6차산업 전문 누리집은 전문적인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 창구의 기능을 하여 6차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또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자문단과 도별로 설치된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현장 자문단을 통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 및 소비 확대”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0일(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와 농식품 수출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이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를 농식품 수출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같은 자리에 참석한 대한상

의가 적극적 역할을 약속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상호간 협력을 통해 농식품 수출과 소비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농식품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올 1월 구성된 민·관합동 「농수산물 수출개척협의회」에 대한상의 및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애로 해소방안을 도출하는데 협력하고,

**둘째**, 대한상의 해외사무소(현재 중국·베트남에 2개소 운영 중이며, 향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라질 등으로 확대 예정)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조사를 실시, 농식품 수출 전략상품을 개발하는데도 협력한다.

**셋째**, 대기업 퇴직인력 등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화·브랜드 개발·현지화 등의 분야에서 농식품 수출업체에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고,

**넷째**,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토록 추진한다.

**다섯째**,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 확대 및 수출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사다리’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그간의 추진실적 : CJ(13.9월), SPC그룹(14.1), 농심(14.4), 매일유업(14.5))

**마지막으로**, 명절선물·국내식당 등을 통해 대기업의 국산 농산물 소비를 지속 확대하는데도 협력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대한상의는 본 업무협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농업인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업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다 진전된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기업과 농식품 가공·유통·수출업체와의 업무협약도 추가로 체결하여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동필 장관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도 제조업, 서비스업, ICT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소년 검역 홍보도우미와 함께하는 국경검역 홍보 행사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는 청소년의 여름방학기간 동안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경검역 홍보와 청소년 봉사활동을 접목한 ‘청소년 검역 홍보도우미’를 운영하였다.

‘청소년 검역 홍보도우미’는 검역본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들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에 대하여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해마다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2주(7.29.~8.8.) 동안 서울·인천·경기지역의 36개 학교의 중·고등학생 404명이 참여하였다.

(\* '05~'14년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 총 7,683명)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8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국가 동물 및 농·축산물 검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 주목받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 구제역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출혈열이 확산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이들 질병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자들에게 축산농장의 방문 및 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이나 망고·고추 등 식물류와 같은 반입금지 대상 검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부득이하게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검역

물품을 휴대한 여행객은 검역본부에 신고(인천 공항지역본부 032-740-2660, 2661)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식품,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고  
위법 시는 처벌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위생 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축산기업·단체·지자체 등의 건의,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 학계·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다.

〈포장된 닭·오리고기,

슈퍼마켓에서도 판매 허용〉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

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돈까스, 치즈돈까스, 김치돈까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시설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모두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 왔다.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등〉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불법도축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현실을 감안하여 시설기준(면적·자동화 여부 등)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시험실·원피처리실 등)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위생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예,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일 것) 이상을 갖추게 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규제 개선 사항〉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혹은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하여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

축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축장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영업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현재는 반복하여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하였다.

참고로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는 500만 원으로서 재위반 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위반 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http://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전북 청사 시대 개막  
8월 4일, 농촌진흥청 현판식과  
농촌진흥청기 게양식 가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8월 4일 농촌진흥청 본청 정문에서 현판식과 농촌진흥청기 게양식을 갖고 새로운 농업 100년 대계를 위한 전북혁신도시 내 청사의 개막을 알렸다.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이 입주하는 8월 말까지 1단계 이전을 마치면 약 860명의 공무원이 전북혁신도시 내 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본청 청사는 대지 면적 34만㎡에 건축 연면적 61만㎡(지하 1층, 지상 9층)로 2011년 7월 착공 후 3년여의 공사를 거쳐 8월 29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청사는 영상회의실과 국제회의장, 통합 관제실, 폐쇄회로TV 등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췄으며, 지열과 태양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1등급 건축물이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 지대인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선진 기술을 도입해

IT산업과 농업을 융합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며, “아울러,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진흥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잡초투성이 초지 개선해  
산지 축산 실현 눈앞!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부실한 산지 초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 연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산지 축산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초지는 총 3만 7,000ha이며, 이 가운데 하급 초지는 1만 1,000ha로 전체의 30.7%를 차지한다. 하급 초지는 비용 부담에 따른 소홀한 관리와 농가의 기술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특히, 산지의 하급 초지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고 생산성이 낮아 산지 축산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농촌진흥청은 강원도 평창의 번식우 농가를 선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석회를 뿌려 토양을 개선하는 한편, 목초를 덧심고 초지를 관리하는 등 식생개선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목초 생산량이 생초 기준으로 ha당 13톤에서 25톤으로 98% 늘었다.

(\* 생초 : 마르지 않고 싱싱한 풀)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정종성 연구사는 “산지 축산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산지 초지 조성관리기술과 축종별 산지 축산 이용 기술 등 11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라며, “환경 적응성이 우수한 산지 축산용 국내 목초 개발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의무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규담, 이하 인증원)은 7월 23일(수) 인증원 3층 대강당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13.07.30)에 따라 HACCP이 의무화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을 대상으로 ‘HACCP 의무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총 70명(집유업 14업체 25명, 유가공업 32업체 45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 HACCP 관련 법 개정 사항 및 향후 정책 방향, △축산물 HACCP인증절차 및 중점 준비(관리)사항, △집유업 HACCP준비를 위한 표준모델 안내, △HACCP적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질의·응답 등이었다.

인증원은 '집유업과 유가공업의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HACCP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업체 대상으로 현장기술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 대상 베스트코와 우리 농산물 공급 MOU 체결

농협중앙회(농업경제대표 이상욱)와 대상 베스트코(대표 이원석)는 8월 5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우리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국내산 농산물 PB 상품 공동개발 ▲양 기관 간 물류 인프라 공동이용을 핵심협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대상 베스트코의 전국 30여 개의 식자재 전문판매장에 공급하고, 대상 베스트코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아 식자재매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청과, 축산물 및 가공식품까지 거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통한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단순한 MOU가 아닌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